

# 시작이 두려운 아이들에게



-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탄취잉 지음 | 김명은 옮김 | 김성신 그림 |  
위즈덤하우스 | 216쪽 | 값 8,800원
- 《청소년 토지》(전 12권)  
박경리 지음 |  
이룸 | 각권 약 170쪽 내외 | 각권 값 8,000원

조주희 | 대광고등학교 교사

한 아이가 귀를 막았다. 두 손이 떨리도록 귀를 꽉 틀어막았다. “못 들겠니?” 물었다. “네.” 정말 괴롭다는 표정으로 답을 한다. 좀 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별 게 아니었다. “공부 잘 할 수 있게 자극이 되는 말 해줄까?”라고 질문한 게 전부였다. 다들 “네!” 고함을 지르는데, 그 아이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귀를 막았다. 그게 지난 3월 초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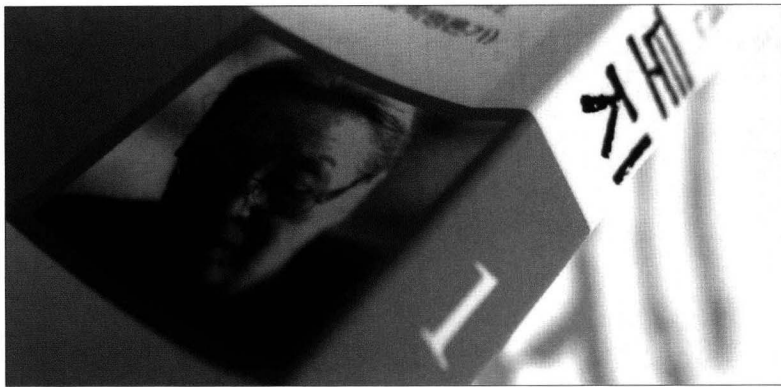
3월은 학생들에겐 시작의 달이다. 새 맘이 시작되는 달이다. “전교 1등 해야지,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아이들 모두 새 꿈을 꾸다. 그리고 열심히 시작한다. 헌데 그 아이는 ‘시작’이란 말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 심정이 이해는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터이다. 하지만 피한다고 될 일은 결코 아니다.

## 살아 있는 동안 시작해야 할 것들

실력 고사 학급별 점수가 나왔다. 국어 11등, 영어 11등, 수학 14등. 한마디로 수학년 1학년 중에서 꼴등이었다. “아주 좋은 시작이다.” 아이들이 와 웃었다. 나

는 교탁을 탕! 내리쳤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오를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만세 삼창을 하겠다.” 아이들은 숙스러워했다. “진짜요?” 우리는 수업 중에 창문도 열고 문도 열고 고래고래 만세 삼창을 외쳤다. 끝나기가 무섭게 옆 반에서 만세 삼창이 들려왔다. 아이들은 따라한다며 한참을 웃었다. 뭐 다소 성적이 뒤쳐지긴 했어도 시작은 시작이다. 그러니 맘껏 당당해져도 상관없다.

우리 반 아이들과 상담을 시작했다. 하루에 한 명씩 30분씩 한다고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아이들은 궁금한 모양이다. 《살아가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꺼내 들었다. “이 책을 상담하기 전까지 읽어와라! 이 책



- 《토지》속 인물처럼 정말 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혼자 살아간대도 행복하지 않다. 더더도 힘겨워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참 기쁨이 있다. 그걸 배우자고 모인 게 바로 학교다.”

은 작은 이야기 49개로 이뤄져 있어. 그걸 다 읽어도 좋고 부분만 읽어도 좋아.”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다 읽은 아이도 있었고, 하나만 읽은 아이도 있었다.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상담용으로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시작에 어울렸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부모님 발 댄다 드리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두려움에 도전해 보기” 등 소재들은 가볍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아이들도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해 냈다. 새 친구를 사귀는데 목표를 삼은 용덕이는 “낯선 사람에게 말 걸어보기”를 읽었다 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할 생각을 하는 경훈이는 “부모님 발 댄다 드리기”를 읽었다 한다.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렇게 시작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만세 삼창을 외친 다음 날, 아이들은 언제 또 만세를 외치냐고 물었다. 처음 할 때는 약간 쭈뼛쭈뼛하더니 이젠 수월하게 느껴지나 보다. 이렇듯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하고 나면 신이 난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지, 결정하면 오히려 개운하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은 항상 싱싱한 느낌이 난다.

###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기

반 아이 둘이 싸웠다. 별 것 아닌 것으로 서로 치고 받고 한 모양이다. 한 명은 입술까지 멍이 들었다. 싸울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속이 상했다. 반 전체가 기쁨을 받았다. 모두가 하나인데 싸워선 안 된다는 게 기쁨의 이유였다. 벌을 주는 나도 속이 편치 않았지만 다신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단속을 해야 했다. 정말이지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다치는 건 싫다. 그럼에도 담임이 되면 별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된다. 학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 아이도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반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토지》는 이번 달에 가까이 다가 온 책이다. 현재 TV에서도 방영하고 있어서 더욱 그랬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토지》를 다시 찾아 꺼내봤다. 《토지》는 읽는 사람은 많아도 완독한 사람은 드물다. 고등학생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문학교과서엔 《토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어디 소설이 부분만 읽고서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하면서도 기대치가 적은 게 사실이었다. 그런 중에 반갑게도 《청소년 토지》가 나왔다. 모두 12권인데 1권 분량은 딱 한 두 시간이면 후딱 읽을 양이다. 글씨도 크고 삽화도 많고 해서 마치 만화책을 읽

는 느낌이다. 또 사건 위주라서 지루하지도 않다. 어찌되었든 이제 《토지》는 읽기에 만만해졌다.

《토지》엔 한 명도 중하지 않은 인물이 없다. 어릴 적 스쳐지나갔던 인물도 꼭 뒤에 복병처럼 튀어나온다. 그 중 거북이가 가장 눈에 띈다. 거북은 최서희 집을 망치게 한 장본인인 김평산의 아들이다. 소설 앞부분에 거북이는 ‘사라졌다더라’라는 언급 이후 한참을 나오지 않는다. 약간 모자라기까지 하던 그는 훗날 180도 변한다. 비열하고 날카롭게. 그렇게 그가 변한 까닭은 다소 어이가 없다. 최서희 탓이라는 게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까맣게 잊고서 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각할까 하다 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다. 한 길 사람 속이 어렵다는 말이 왜 있겠는가. 《토지》속의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우리네 삶을 본다. 《토지》속 인물처럼 정말 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혼자 살아간대도 행복하지 않다. 더더도 힘겨워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참 기쁨이 있다. 그걸 배우자고 모인 게 바로 학교다.

첫날 괴롭다며 귀를 막던 아이는 어떻게 지낼까. 수업 시간마다 눈으로 찾아 봤다. 힘겹다던 표정은 없어지고 열심히 듣고 적는다. 힘겨워도 시작하고 있는 모양이다.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모든 아이들이 시작이 힘겹더라도 마지막 열매가 풍성하기를... 항상 3월이면 드는 생각이다. **한**

###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